

뉴질랜드 콘텐츠산업 동향

2023년 3호

(2023년 뉴질랜드 음악산업 현황)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뉴질랜드 콘텐츠산업 동향

CONTENT INDUSTRY TREND OF NEW ZEALAND

2023년 3호

구분(장르)	제 목	Key Word
심층이슈	뉴질랜드 음악산업 현황	음악 스트리밍 라이브공연 라디오

작성 |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배포 | 2023.11.02.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심층이슈

I. 뉴질랜드 음악산업 현황

작성 순서

1. 배경
2. 뉴질랜드 음악산업 현황
3. 결론 및 함의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KOCCA

1 배경

>>>

뉴질랜드 음악시장은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큰 고비를 겪은 이후 2021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20년 음악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2% 감소한 1억 8,700만 달러에 그쳤으나 2021년부터 3년간 연평균성장률 11%로 지속 성장하며 2023년에는 팬데믹 이전 대비 약 17% 증가한 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함

뉴질랜드 음악시장의 성장의 주요 동인으로는 스트리밍과 라이브공연 시장의 꾸준한 성장 등을 꼽을 수 있음. 스트리밍 부문은 모든 부문이 내림세를 겪고 있던 2020년에 전년 대비 17% 증가했으며 이후 연평균성장률 8%로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라이브공연 부문은 2020년 전년 대비 약 50% 이상 감소하며 역대 최악의 실적을 보였으나 이후 서서히 회복되며 2023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복귀될 것으로 전망됨

2019년부터 2021년 동안 팬데믹의 영향으로 뉴질랜드 음악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는 매년 감소함. 특히 라이브공연 부문의 급격한 하락 추세는 음악시장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스트리밍 서비스에 힘입어 소매 부문의 지속 성장이 전체 음악산업을 견인함. 2022년 뉴질랜드 음악산업의 총부가가치(Total value added) 규모는 7억 2,000만 달러에 이르며 직접 전일제 일자리 수는 2,237개에 달하였음

그러나 2023년 음악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는 전년 대비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기여도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대에 의해 오프라인 판매 매장(실물 소매)이 축소되며 해당 일자리 감소의 원인임

한편 뉴질랜드 라이브공연 시장이 급격히 회복되면서 해외 유명 아티스트 라이브공연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2023년 11월 뉴질랜드 최초로 K-Pop 가수들이 참여하는 'K-Wave Auckland'가 오클랜드의 Trusts Arena에서 개최되며 큰 관심을 끌고 있음. 이전에 지드래곤, P1Harmony, 백예린 등 단독 콘서트는 여러 번 있었으나 여러 명의 가수가 참여하는 페스티벌 형식의 공연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짐

2 뉴질랜드 음악산업 현황



1. 뉴질랜드 음악시장 규모

- ✓ PwC의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18~2027'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뉴질랜드의 음악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2억 8,000만 달러로 전망됨. 팬데믹 이후인 2020년은 전년 대비 약 22% 감소한 1억 8,700만 달러에 그쳤으나 2020년 이후 연평균성장률(CAGR) 18%로 2022년에는 2억 6,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섬. 음악시장의 성장을 이끈 주요 동인으로는 라이브공연의 회복과 스트리밍 시장의 꾸준한 성장 등을 꼽을 수 있음
- ✓ 라이브공연의 경우, 팬데믹 초기인 2020년은 전년 대비 약 50% 이상 감소한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악의 실적을 보였지만 2021년에 8,900만 달러, 2022년에 1억 1,400만 달러로 서서히 회복됐으며, 2023년 추정 실적은 1억 2,000만 달러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1억 2,500만 달러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함
- ✓ 스트리밍 부문은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지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스트리밍 시장 규모는 9,100만 달러였으나 2020년은 전년 대비 약 17% 증가한 1억 6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후 연평균성장률 8%로 2023년에는 1억 3,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 한편 음악 다운로드 부문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2027년에는 뉴질랜드의 음악 다운로드 시장은 소멸할 것으로 전망됨
- ✓ 뉴질랜드 음악시장 규모는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성장률 3%로 2027년에는 3억 1,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스트리밍 부문은 2027년 1억 5,300만 달러로 전체 음악시장 규모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함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공연	후원·광고	21	21	9	12	18	20	21	21	21	21
	티켓 판매	100	104	50	77	96	102	107	110	112	113
음반	다운로드	6	4	3	3	2	2	1	1	1	0
	스트리밍	71	91	106	119	125	135	143	149	152	153
	저작권료	10	10	9	9	10	10	10	11	11	11
	게임·광고 등 저작료	1	1	1	1	1	1	1	1	1	1
	음반 판매	11	9	9	8	10	10	10	11	11	11
합계		220	240	187	229	262	280	293	304	309	310

| 표 1 | 뉴질랜드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18~2027 (단위: 백만 달러, 출처: PwC)

2. 뉴질랜드 음악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 ✓ 뉴질랜드 문화유산부(Ministry for Culture & Heritage)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창조 부문(Creative Sector)은 음악을 비롯해 디자인, 광고, 영화, 패션, 게임, 도서(books), 출판, 사진, 소프트웨어, 건축, 시각 디자인, 공연예술, 혼합현실(mixed reality) 등 14 개 부문으로 구분됨
- ✓ 2022 년 3 월 기준 뉴질랜드 창조 부문 중 디자인, 광고, 영화, 패션, 음악, 게임 및 도서 등 7 개 부문의 총부가가치 규모는 221 억 7,800 만 달러에 이르며, 직접 부가가치(Direct value added) 규모는 149 억 달러를 기록함. 창조 부문의 연간 성장률은 10%로 나머지 산업 평균인 5.3%를 크게 앞섰으며, 뉴질랜드 전체 고용인력(직접 전일제 고용인력)의 4.5%(132,245 명), 전체 사업자의 5.7%(35,955 개)를 차지하고 있음



| 그림 1 | 주요 창조 부문의 총부가가치 규모와 직접 전일제 일자리 수 (출처: WeCreate 및 PwC)

- ✓ 2019 년부터 2021 년 동안 팬데믹의 영향으로 뉴질랜드 음악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는 매년 감소함. 특히 라이브공연 부문의 급격한 하락 추세는 음악시장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그러나 스트리밍 서비스에 힘입어 소매 부문의 지속 성장이 전체 음악산업을 견인함. 2022 년 음악산업은 스트리밍과 해외 매출 등에 힘입어 2021 년 대비 증가했으나 고용 기여도는 지속해서 감소함
- ✓ 2022 년 뉴질랜드 음악산업의 직접 부가가치 규모는 3 억 5 천만 달러로 간접 부가가치를 포함한 총부가가치 규모는 7 억 2 천만 달러로 추정함. 또한, 전일제 고용인력(FTE, Full Time Equivalent) 일자리 수 2,237 개와 간접 고용인력¹⁾ 2,658 개 등 총 4,895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 ✓ 음악산업의 부문별로는 소매판매가 1 억 2,600 만 달러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라디오 방송이 9,200 만 달러, 라이브공연 6,800 만 달러, 해외 매출이 4,300 만 달러 순임. 그러나 직접 전일제 일자리 수에서는 라이브공연이 941 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라디오 방송 712 개, 소매 판매 361 개, 대중 공연 200 개 등으로 나타남 (해외 직접 일자리 0 개)
- ✓ 뉴질랜드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대에 의해 오프라인 판매 매장(실물 소매)이 축소되면서 해당 일자리가 줄어 국내 음악산업의 고용 기여도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1) 간접 고용인력: 간접 일자리 및 고용 유도 일자리 포함



| 그림 2 | 뉴질랜드 음악산업의 직접 부가가치 규모와 직접 일자리 추이 (출처: PwC)

☑ 소매 부문(Retail)

- 뉴질랜드 음악산업의 2022 년 소매 부문 시장 규모는 약 1 억 9,800 만 달러로 8 년 연속 성장을 기록함. 이는 뉴질랜드의 직접 부가가치 규모는 1 억 2,600 만 달러이며 직접 일자리 수는 361 개를 기록함. 간접 부가가치를 포함할 경우 총부가가치 규모는 1 억 7,000 만 달러에 이르며 간접 일자리 수를 포함하면 총 일자리 수는 647 개로 추정됨
- 소매 부문의 경제적 기여 규모는 뉴질랜드 전체 소매 부문의 약 12%에 해당함

	총 매출 (백만 달러)	부가가치(Value added, 백만 달러)		일자리(FTE)	
		직접 부가가치	총부가가치	직접 일자리	총 일자리
실물 판매	17	13	20	68	115
다운로드	3	2	2	4	8
온라인 스트리밍	178	111	148	289	524
소매 합계	198	126	170	361	647

| 표 2 | 2022년 소매 부문 경제적 기여도 (출처: PwC)

- 2022 년 뉴질랜드 내 제작 콘텐츠의 소매 채널을 통한 직접 부가가치 비율은 전체의 12%에 불과하며, 나머지 88%가 해외 제작 콘텐츠에 의한 것임
- 일반적으로 소매 부문의 경제적 기여는 실물 판매에서 비롯됨. 그러나 실물 판매는 매우 감소하여 2012 년의 60%에 비해 2022 년에는 9%에 불과함. 이러한 실물 판매의 감소는 지난 5 년간 빠르게 성장해 현재 소매 부문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스트리밍의 성장으로 상쇄됐으며 스트리밍 서비스는 소비자들을 위한 주요 소매 채널이 됨

☑ 음악 재생 부문(라디오 제외)

- ‘음악 재생’이란 소매점, 식당, 카페, 체육관 등과 같은 공공시설에서의 음악 재생 행위를 의미하며, 뉴질랜드는 Recorded Music NZ²⁾와 APRA AMCOS³⁾의 데이터에 의해 음악 사용

2) Recorded Music NZ: 뉴질랜드 음반산업협회

로열티가 산정·분배됨

- 2022년 뉴질랜드 음악산업의 음악 재생 시장 규모는 5,700만 달러이며, 총부가가치 규모는 직접 부가가치 2,0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4,900만 달러임. 또한, 일자리 수는 직접 전일제 일자리 200개를 포함해 총 362개로 추정됨
- 음악 재생 부문의 시장 규모 5,700만 달러 중 뉴질랜드 콘텐츠는 1,600만 달러에 불과하나 뉴질랜드 콘텐츠의 총부가가치 기여도 76%, 고용 기여도는 67%를 차지함
- 음악 재생 부문의 경제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뉴질랜드의 음악 재생 로열티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에 기인함

	직접적 경제적 영향		총 경제적 영향	
	전체 음악	뉴질랜드 음악	전체 음악	뉴질랜드 음악
총 매출 (백만 달러)	57	16		
부가가치(백만 달러)	20	15	49	37
고용(FTE)	200	135	362	244

| 표 3 | 2022년 음악 재생 부문 경제적 기여도 (출처: PwC)

❖ 라디오 방송 부문

- 2022년 라디오 방송 부문의 시장 규모는 2억 2,900만 달러이며 총부가가치 규모는 직접 부가가치 9,2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2억 6,600만 달러로 추정됨. 또한, 일자리 수는 직접 전일제 일자리 712개를 포함해 총 1,982개로 추정됨
- 라디오 방송 부문 중 뉴질랜드 음악의 직접 부가가치는 전체의 23%, 직접 고용 기여도는 23%에 불과함. 한편 2022년 라디오 방송 부문의 총매출은 2020년 감소 이후 2021년과 2022년 지속해서 증가해 2022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함

	직접적 경제적 영향		총 경제적 영향	
	전체 음악	뉴질랜드 음악	전체 음악	뉴질랜드 음악
총 매출 (백만 달러)	229	53		
부가가치(백만 달러)	92	21	266	61
고용(FTE)	712	164	1,982	456

| 표 4 | 2022년 라디오 방송 부문 경제적 기여도 (출처: PwC)

❖ 라이브공연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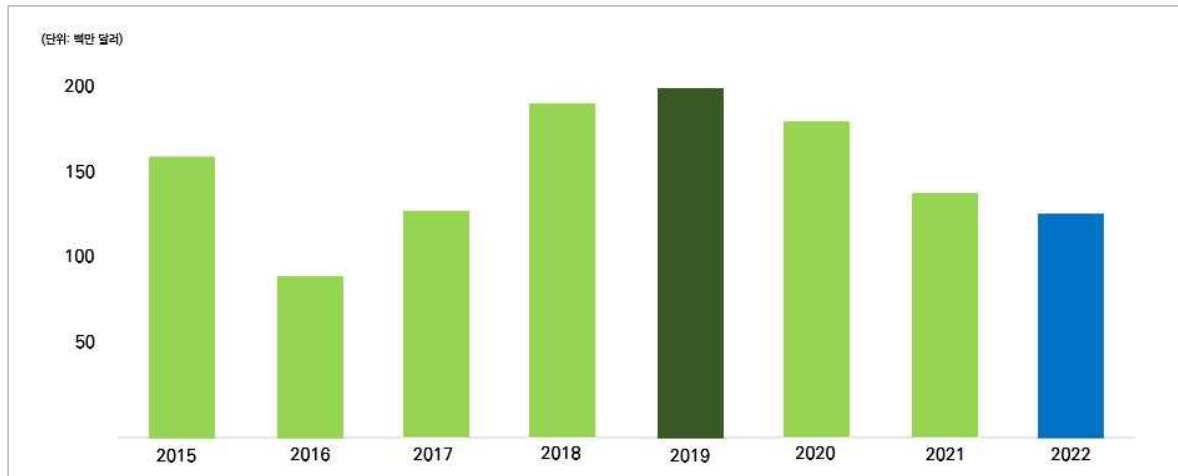
- APRA AMCOS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뉴질랜드 라이브공연 시장 규모는 약 1억 2,500만 달러이며 총부가가치 규모는 직접 부가가치 6,8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1억 6,700만 달러로 추정됨. 또한, 일자리 수는 직접 전일제 일자리 941개를 포함해 총 1,703개로 추정됨

3) APRA AMCOS는 APRA(Australasian Performing Right Association) 및 AMCOS(Australasian Mechanical Copyright Owners Society)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의 100,000명 이상의 작곡가, 음반 제작사 등이 회원으로 있음

	직접적 경제적 영향		총 경제적 영향	
	전체 음악	뉴질랜드 음악	전체 음악	뉴질랜드 음악
총 매출 (백만 달러)	125	35		
부가가치(백만 달러)	68	19	167	47
고용(FTE)	941	263	1,703	477

| 표 5 | 2022년 라이브공연 부문 경제적 기여도 (출처: PwC)

- 2022년 라이브공연 부문의 총매출 규모는 2019년 대비 36% 감소한 수준으로 아직 팬데믹 이전 규모로 회복하지 못함. 이는 뉴질랜드의 경우에 2021년까지 외부 활동 제한과 국경 봉쇄를 이어와 해외 아티스트들이 뉴질랜드 공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2022년 국경을 개방했으나 오미크론 발병으로 인한 제한 조치가 이어져 여름 공연 시즌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음



| 그림 3 | 뉴질랜드 라이브공연 부문 총 매출 추이 (출처: PwC)

❏ 동기화(synchronization) 부문

- 뉴질랜드 음악산업의 동기화 부문은 저작권자들이 광고, 게임,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사용할 음악을 라이선스할 때 얻는 모든 로열티를 포함함
- 2022년 동기화 부문은 총 4백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총부가가치 규모는 직접 부가가치 2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500만 달러로 추정됨. 또한, 일자리 수는 직접 전일제 일자리 24개를 포함해 총 43개로 추정됨

	직접적 경제적 영향		총 경제적 영향	
	전체 음악	뉴질랜드 음악	전체 음악	뉴질랜드 음악
총 매출 (백만 달러)	4	2		
부가가치(백만 달러)	2	2	5	11
고용(FTE)	24	16	43	93

| 표 6 | 2022년 동기화 부문 경제적 기여도 (출처: PwC)

✓ 해외 수입(overseas earnings)

- 해외 수입이란 해외에서 벌어들인 뉴질랜드 음악 수입이 다시 뉴질랜드 경제로 유입되어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에 기여하는 자금을 의미함
- 뉴질랜드 음악산업의 수출 관련 공식 통계는 없으나 PwC와 뉴질랜드 음반산업협회가 공동으로 해외 판매 수익, 라이브공연, 스트리밍, 동기화 로열티 등과 관련된 산업 데이터 조합을 기반으로 추정한 수치임

	2018~2020 평균
로열티 (백만 달러)	23
라이브공연 등 (Value added, 백만 달러)	13
합계	36

| 표 7 | 2022년 해외 수입 부문 경제적 기여도 (출처: PwC)

3. 뉴질랜드 음악산업 관계기관

✓ Recorded Music New Zealand(前 뉴질랜드 음반산업협회)

- Recorded Music NZ는 뉴질랜드에서 음반을 판매하는 음반 제작자, 유통회사, 음반 아티스트로 구성된 비영리협회임. Recorded Music NZ의 회원 자격은 주요 레이블(예: 소니, 유니버설, 워너 뮤직 등), 독립 레이블 및 자체 발매 아티스트를 포함하여 뉴질랜드에서 활동하는 녹음 음악 권리 소유자에 한하며 현재 2,000명 이상의 저작권자가 회원으로 있음
- Recorded Music NZ의 세 가지 기능
 - 회원 서비스(뉴질랜드 Music Award, 공식 뉴질랜드 Music Chart, 음악 보조금 및 아티스트와 음반회사에 대한 직접 서비스)
 - 음악 라이선스(독립적으로 수행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Recorded Music NZ와 APRA 간의 합작 라이선스 기업인 OneMusic을 통해 수행됨)
 - Pro Music 서비스(저작권 보호, 기업 업무 관련)
- 웹사이트: <https://www.recordedmusic.co.nz/>

✓ APRA AMCOS

- APRA AMCOS는 APRA(Australasian Performing Right Association) 및 AMCOS(Australasian Mechanical Copyright Owners Society)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저작권 관리 조직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100,000명 이상의 작곡가 및 음악 출판사를 공동으로 대표함. 두 조직은 호주 저작권법(1968)에 따라 회원에 대한 공정한 지급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음악 작품의 창작자인 회원을 대신하여 공연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공연, 복제 권한을 관리하기 위해 협력함
- 웹사이트: <https://www.apraamcos.com.au/>

✓ Independent Music New Zealand(IMNZ)

- IMNZ는 뉴질랜드 독립 음반사와 유통업체를 위해 2001년에 설립된 단체이며 주로 독립 레이블과 아티스트를 홍보하기 위함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웹사이트: <https://www.indies.co.nz/>

✓ Music Managers Forum New Zealand(MMF NZ)

- MMF NZ는 음악 매니저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문회원 단체인 Music Manager Forum의 뉴질랜드 지부이며 매니저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이벤트 등을 운영함
- 웹사이트: <https://www.mmf.co.nz/>

✓ New Zealand Music Commission(NZMC)

- New Zealand Music Commission(뉴질랜드 음악위원회)은 정부 지원을 받는 예술기관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뉴질랜드 음악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NZMC의 이사회는 Recorded Music NZ, MMF NZ, IMNZ 등 뉴질랜드의 주요 관계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됨
- 웹사이트: <https://nzmusic.org.n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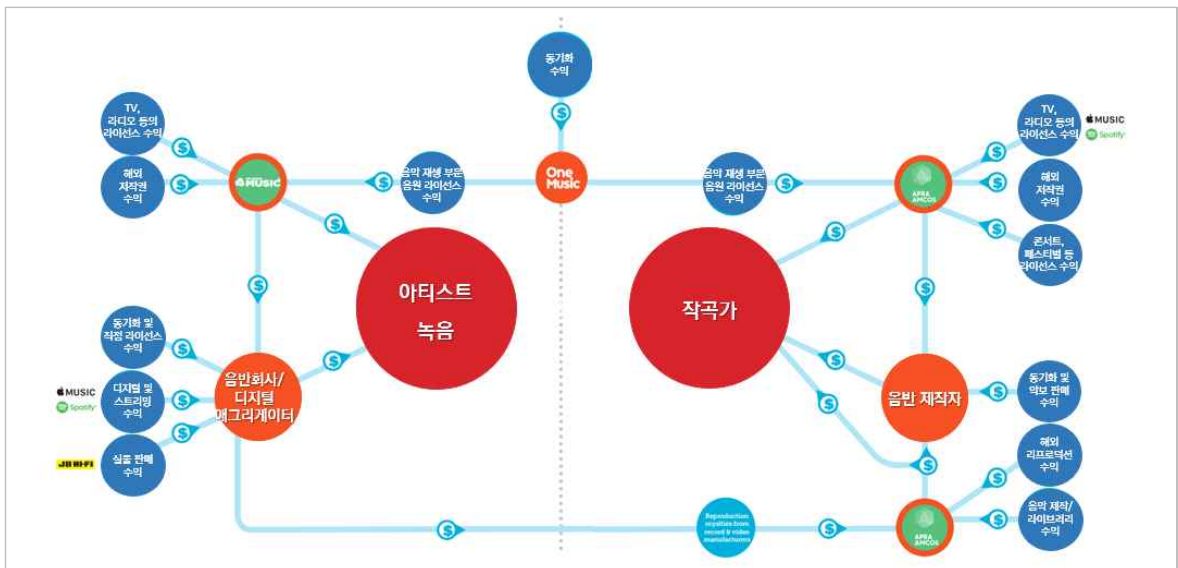


그림 4 | 뉴질랜드 음악산업 저작권 흐름 개요 (출처: 뉴질랜드 음악위원회)

4. 뉴질랜드 공연장 현황

뉴질랜드에는 음악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공연장 중 30,000~50,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공연장을 비롯해 해외 아티스트 공연이 자주 열리는 오클랜드의 Spark ARENA 등 유명 공연장이 많음. 에드 시런의 2023년 2월 웰링턴의 Sky Stadium에서 로드 스튜어트는 2023년 4월에 더니든시(Dunedin City)의 Forsyth Barr Stadium에서 공연하는 등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뉴질랜드 공연은 줄을 잇고 있음

✓ Spark ARENA

- 2017년 개관한 Spark ARENA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소재한 다목적 경기장으로 음악 공연뿐만 아니라 농구, 아이스하키 등 다양한 경기와 국제 이벤트 등이 열림



| 그림 5 | Spark ARENA 이미지 (출처: 해당 웹사이트)

- 약 12,000 명이 수용 가능한 Spark ARENA 는 글로벌 유명 가수의 라이브공연과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 Walking With Dinosaurs Arena Spectacular 등 유명 쇼가 정기적으로 공연되고 있음
- 한국 가수로는 지드래곤(2017 년), P1Harmony(2023 년) 등이 공연함
- 웹사이트: <https://www.sparkarena.co.nz/>

✓ Forsyth Barr Stadium



| 그림 6 | Forsyth Barr Stadium 이미지 (출처: 해당 웹사이트)

- 2011 년 개장된 Forsyth Barr Stadium 은 뉴질랜드 남섬 오타고의 더니든시(Dunedin City)에 있는 다목적 경기장으로 럭비 월드컵, 여자축구 월드컵 등 대형 국제대회가 열림
- 최대 30,000 명 수용 가능한 Forsyth Barr Stadium 은 엘튼 존, 로드 스튜어트, 신디 로퍼, 에드 시런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공연이 개최됨
- 웹사이트: <https://forsythbarrstadium.co.nz/>

✓ Mount Smart Stadium



| 그림 7 | Mount Smart Stadium 이미지 (출처: 해당 웹사이트)

-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Mt. Smart Stadium(일반적으로 Auckland Stadium 으로 불림)은 럭비 구단인 뉴질랜드 워리어스(New Zealand Warriors of the National Rugby League)의 홈구장으로 유명함
- 콘서트를 위한 수용 인원은 약 47,000 명이 이르며 임시 좌석을 설치할 경우 최대

60,000 명까지 수용 가능함. 공연으로는 최근에 아델, 브루스 스프링스틴, 에드 시런, 테일러 스위프트, 콜드플레이 등과 같은 국제적인 슈퍼스타가 공연했으며, 과거에는 롤링 스톤즈, 이글스, U2 등이 공연함

- 웹사이트: <https://www.aucklandstadiums.co.nz/>

✓ Sky Stadium



| 그림 8 | Sky Stadium 이미지 (출처: 해당 웹사이트)

- 뉴질랜드 웰링턴에 있는 Wellington Regional Stadium(후원권으로 Sky Stadium 으로 명명됨)은 수용 인원이 최대 50,000 명 이상인 대형 다목적 경기장임
- 2023 년 2 월 에드 시런(Ed Sheeran)의 공연에 47,000 명의 관중이 입장해 이 경기장에서 열린 행사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2019 년 3 월에는 에미넴(Eminem)의 공연에 46,474 명의 관중이 참석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관중을 모음. 또한, 2020 년 2 월에 Queen & Adam Lambert 의 랩소디 투어 등 많은 유명 해외 아티스트의 공연이 진행됨
- 웹사이트: <https://www.skystadium.co.nz/>

✓ Trusts Arena



| 그림 9 | Trusts Arena 이미지 (출처: 해당 웹사이트)

- Trusts Arena 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헨더슨(Henderson)에 있는 실내 경기장으로 주로 스포츠 경기와 음악 공연 등이 열리는 다목적 경기장이며 수용 인원은 4,900 명임
- 2023 년 11 월 뉴질랜드 최초로 이하이, 10cm, 제이, KARD 등 K-Pop 가수들이 공연하는 'K-Wave Auckland' 열리는 장소임
- 웹사이트: <https://thetrustsarena.co.nz/>

- ✓ 이외에도 크라이스처치의 AMI Stadium(최대 18,000 명)과 Horncastle Arena(최대 9,000 명), 오클랜드의 Eden Park(50,000 명), 해밀턴의 Claudelands Arena(6,000 명), 웰링턴의 TSB Bank Arena(5,000 명) 등 대형 공연장과 다수의 중소형 공연장이 있음

3 결론 및 함의



뉴질랜드의 음악산업은 최근 몇 년간 상당한 변화를 겪음.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부상과 라이브공연 시장의 회복으로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고 역동적인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음.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음원 플랫폼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뉴질랜드의 아티스트와 음악가에게 자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문을 열었고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길을 제공하고 있음. 로드(Lorde), 식스60(Six60), 베네(Benee) 등과 같은 뉴질랜드 아티스트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뉴질랜드 음악계의 미래 전망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

또한, 뉴질랜드 음악산업은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2022년 음악산업은 음원 및 음악 관련 제품 판매로 인한 직접 시장뿐만 아니라 관광 및 기타 산업 등 간접 시장을 통해 뉴질랜드 경제에 약 10억 달러 이상 기여했으며, 직간접 부문에서 약 15,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짐

뉴질랜드 음악산업은 재능 있는 아티스트와 음악의 다양성, 정부의 지원 정책,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신형 아티스트(로드, 식스60, 베네 등)의 등장, 유명 음악 축제를 통한 음악 관광산업 활성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적은 인구의 제한된 시장 규모,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리적 여건 등 시장 성장을 제한하는 단점들도 공존하고 있음

한국과 뉴질랜드의 음악산업 교류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양국 아티스트의 교류가 이루어져 왔음.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과 뉴질랜드의 음악산업 교류는 더욱 확대되어 한국의 음반사와 뉴질랜드의 아티스트가 공동으로 음반을 발매하고 양국 아티스트가 함께 공연을 펼치는 등 협력이 강화됨. 또한, 양국 음악 교육기관이 교류를 확대하면서 양국 음악가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짐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의 공동 제작 음반으로는 Republic Records와 베네(Benee)의 'Lollipop Remix(2020년)', 유니버설 뮤직 코리아와 로드(Lorde)의 'Solar Power(2021년)', Loen Entertainment와 더 퍼시픽스(The Pacifics)의 'The Pacifics(2008년)', EMI Korea와 넬슨 러셀(Nelson Russell)의 'The Road to Seoul(2000년)', CJ Music과 스위트 앤 사운드(Sweet 'n' Sound)의 'The Best of Sweet 'n' Sound(2003년)' 등 약 20개가 넘음. 또한, 2022년에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가 공동으로 음악 캠프를 개최했으며 2021년에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뉴질랜드 빅토리아대학교 웰링턴캠퍼스 음악학과가 공동으로 공연을 개최하는 등 양국 간 음악 교육기관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있음

뉴질랜드의 가수 중 로드(Lorde)와 베네(Benee)는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K-팝 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음. 로드는 2013년 데뷔 앨범 'Pure Heroine'로 한국에서 골드 인증을 받았으며 2017년 앨범 'Melodrama'는 플래티넘 인증을 받음. 베네는 2014년 데뷔 싱글 'Fire Fire'로 한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2017년 앨범 'Hey U X'는 한국에서 플래티넘 인증을 받음. 최근 한국의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뉴질랜드에서도 K-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 음반사와 뉴질랜드 음악가의 공동 작업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함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담당자 연락처

김영수 센터장	+62-21-252-3151	yskim@kocca.kr
김은지 주임	+62-21-252-3151	milykim@kocca.kr

뉴질랜드 콘텐츠산업 동향

2023년 3호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수 김영수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장) 김은지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주임)

집필자 이현석 (PT Daehong Communications Indonesia 팀장) 이철웅 (PT Daehong Communications Indonesia 법인장)
이화진 (PT Daehong Communications Indonesia 팀장)

발행인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발행일 2023년 11월 02일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홈페이지 www.kocca.kr

ISSN 2733-5798 (비매품)

- 본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의 <콘텐츠지식>에 게재되는 보고서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콘텐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1566-1114”